

마크 제닝스 박사, 마가복음 24강, 마가복음 15:32-16:8, 십자가 처형, 빈 무덤, 그리고 마무리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4, 마가복음 15:32-16:8, 십자가 처형, 빈 무덤, 그리고 끝입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15장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그다음 마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본문에 대한 대화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는 마가복음의 신학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책 전체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상기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빌라도와의 심문을 마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했습니다. 군인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때렸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가시의 월계관을 씌웠고,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힐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Simon Serene이 십자가 들보를 나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제비가 나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16~32절의 끝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한 곳으로 갑니다.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제3시, 25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살펴보면, 그 위에 쓰여진 정확한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유대인의 왕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 또는 주된

이유, 로마가 그 혐의를 메시지로 머리 위에 두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십자가 처형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메시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더 광범위한 복음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대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것이 기소라고 강조합니다. 거기에는 또한 정치적 성명이 있는데, 완전히 구타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침을 뱉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거기서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7절에서, 그들은 그들과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한 명은 그의 오른편에, 한 명은 그의 왼편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강도는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강도라는 용어는 아마도 도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강도, 조직적인, 어쩌면 혁명가에 더 가깝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이디어였을 것입니다.

언어가 매혹적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존과 제임스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왕국에 들어오실 때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강도들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간 상기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명은 예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하려고 온 일이며, 이것이 그의 왕국이 이곳에 오는 것이라는 미묘한 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완전히 혼자인지 주목하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나가는 다른 무리들로부터 이런 일련의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며, 아하, 성전을 파괴하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은 당신이여,

자신을 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진술들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파괴하고 사흘 만에 재건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재판의 일부였고, 성전을 파괴하고 재건할 능력이 있다는 그의 고발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가가 사람들이 그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한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들이 그를 조롱한 유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마가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여기서 예수, 마가가 지금까지 예수가 해오셨던 일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전의 저주, 무화과나무의 저주가 성전 활동의 저주와 결합되어 종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도 언급하는 3일간의 언급이 있지만, 우리는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성전을 끝내고 3일 안에 새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전의 종말, 성전의 관행, 성전의 목적, 성전이 행한 일, 성전이 봉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되고 있는 성전으로서의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그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도, 예수가 말한 것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고 자신을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제 생각에,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하는 방식에 대한 마가복음 전체에서 본 이 엄청난 아이러니와 전달되는 힘 때문에 기억하기 위해 이러한 문구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그를 조롱하고 대제사장도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진술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면에서 슬픈 일입니다.

하나는 이 순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믿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일을 보고도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들이 지금 믿는 것만으로 믿음에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저 사실이 아니라는 현실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했지만 믿지 않았고 심지어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온 이유이며 그 이유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마치며,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그를 욕했습니다.

마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한 도둑 사이의 대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가에게 그 그림은 완전한 외로움과 거부감의 그림으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조차도 어쨌든 예수를 부끄럽게 하는 입장을 취하는 장면은 그 순간의 외로움과 비천함을 말해줍니다. 그런 다음 33절에서 47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정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섯 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아홉 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임한 때는 한낮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예수께서

잔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그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마실 필요가 없게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을 논의할 때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잔 모티브는 심판과 구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이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것과 관련된 언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정오가 어두워짐에 따라, 우리는 주님의 날에 적용된 창조의 물리적 결과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는 유사한 현실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13장과 요엘 2장 , 요엘 3장, 아모스 5장, 아모스 8장의 주님의 날은 어둠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 8장과 9장은, 마가복음도 우리에게 정오이며, 지금은 어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의 유월절 배경을 감안할 때, 그것은 어둠의 재앙과 3일 동안 덮이는 어둠을 상기시켜줍니다 . 그래서 주님의 날과 어둠의 탈출에서 온 재앙이라는 심판의 측면은 심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순간에 도달하고 있으며, 지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 순간에요. 이 세 시간, 즉 여섯 시에서 아홉 시까지의 시간이 주님의 날의 순간입니다. 주님의 날이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동안 여기에는 세 시간의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가복음이 그리스어로 쓰여졌지만 예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실제 아람어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아람어를 볼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지만, 대부분은 아람어 단어였을 그리스어 번역의 영어 번역을 볼 수 있습니다.

Eloi , L'ma 의 아람어를 얻는지에 대한 추측이 있었습니다. 사박타니 . 마크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거기에 아람어가 없었다면, 로마 독자, 그리스 독자, 그리고 물론 우리도 군중이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음성적 유사성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아람어로 외치는 것을 본다면, 왜곡되고, 구타당하고, 탈수된 입으로 Eloi Eloi가 발음적으로 어떤 유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우며, 이는 엘리야에게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변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에게 외치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저는 마가가 단순히 그 순간의 심각성 때문인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그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독자를 돕기 위해 아람어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독자가 군중이 예수가 엘리야를 부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가 엘리야를 부를 것이라는 것도 그 배경에 적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으로 엘리야가 올지도 모른다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엘리야라는 인물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순간을 주변 군중이 잠깐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못 이해했을지도 모른다, 예수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말하는 기대의 순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미가 여전히 조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도움과 절박함의 외침처럼 보이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 중 하나는 이것이 예수님의 무작위적인 부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시편 22편 1절에서 나온 것이고 시편 22편 1절의 첫 구절입니다. 흥미로웠는데, 여기서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이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 우리에게 말한 것과 얼마나 비슷한지.

너무 비슷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런 외침을 하셨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후기 교회가 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시편 22편을 보고,

이거 너무 완벽히 맞아떨어지니까 예수께서 실제로 이걸 외치게 해보려고 해서 예수의 입에 실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 입장을 취해서, 예수께서 아마 이걸 외치셨을 거고, 마가가 보고, 이걸 외칠 거라는 걸 알고, 시편 22편을 중심으로 이 모든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말합니다. 저는 잠깐 이걸 통과할 수 있는 길이나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편 22편이 얼마나 비슷한지 인식해야 하고, 이 시기에 구절에서 구절을 인용하고 더 넓은 구절을 고려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요.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시편 22편에서 몇 가지를 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예수님이 부르짖고, 예수님은 겐세마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2편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겪고 있는 부르짖음을 길들이거나 꺾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22편, 저는 여기서 시편 22편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흥미롭게 여길 만한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물론 첫 번째 구절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당신은 내 신음 소리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 나는 낮에 부르짖지만 당신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에도 침을 얻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양에 던져지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당신을 신뢰하였고, 그들은 신뢰하였고 당신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부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신뢰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이고 사람이 아니며, 인류에게 멸시를 받고 백성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입을 벌리고, 고개를 흔들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마가복음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신뢰하니,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그가 그를 구출하시게 하라 .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이것이 이 조롱의 일부이다.

그러나 당신은 나를 태에서 데려가신 분입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나를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어머니의 태에서 당신은 나를 나의 하느님으로 삼으셨습니다.

나에게서 멀리 계시지 마십시오. 환난이 가까이 있습니다. 도울 자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는 이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강한 황소가 나를 에워쌉니다.

그들은 으르렁거리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나에게 입을 벌린다. 나는 물처럼 쏟아졌다. 내 모든 뼈는 어긋났다.

내 마음은 밀랍과 같아 내 가슴 속에서 녹습니다. 내 힘은 옹기 조각처럼 말라 버렸습니다. 내 혀가 턱에 붙어 있고, 당신은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두셨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손과 발을 찢었습니다. 나는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쳐다보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은 내 옷을 그들끼리 나누었습니다. 내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멀리 계시지 마십시오.

오, 나의 도우시는 분이시여, 빨리 와서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구해 주시고, 내 귀중한 생명을 개의 권세에서 구해 주소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22절에서, 나는 회중 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고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은 그를 찬양하십시오.

모든 자손 돌아,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경외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돌아. 그는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는 그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에게 부르짖을 때 들으셨습니다. 큰 회중에서 당신께로부터 찬양이 나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내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괴로움을 받는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요, 그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요,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노라.

땅 끝까지 다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킬 것이요,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왕권은 주께 속함이니라.

그리고 그는 그 나라를 다스린다. 땅의 모든 번영하는 자는 먹고 경배한다 . 먼지로 내려가는 모든 자는 그 앞에 절할 것이다.

자신을 살릴 수 없는 자도.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다. 이는 주님께 대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이다.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백성에게 그의 의로움을 선포하러 올 것이다. 그가 그것을 행했다는 것을. 거기에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 즉 제비 뽑기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조롱. 주변 환경 . 외로움.

고통. 거부. 하지만 그 시편에서도 주목하세요. 대부분의 애가 시편처럼 움직이는 호가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외침에서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에 대한 선언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시편 22편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셨다고 선포할 것입니다. 사실, 시편 22편의 언어

대부분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언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중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말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이쪽에 서서입니다. 시편 22편에서 복음 선교의 확산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저는 이런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교회가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 붙인 것은 그것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일까요? 글썄요, 둘 다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하는 옵션이 있지 않을까요? 마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역사적이 되도록 허용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수난 예언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그것들이 역사적이라고 생각할까? 우리가 그것들이 예수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 과정에서, 심지어 그의 체포 직전까지도, 아니면 그 전에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까? 그는 고난받는 종이 되기 위해 이 사명을 위해 왔다면 어떤 말을 할지 어느 정도 고려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는 그저 자발적으로 울부짖은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어떤 고의적인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자신에게 제공된 것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미리 계획하고, 미리 결정하고, 고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이 어두웠던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쏟아지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자신이 버림받은 이 완전한 순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고, 시편 22편을 선택하는 것은 고통에 대한 완전한 부르짖음이 있지만

복음의 위대한 선포로 끝나는 시편 22편은 예수님과 그의 권위와 그의 결단력과 매우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친 후의 순간이 있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38절에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39절, 그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이 그가 이렇게 숨을 거두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 휘장이 찢어짐,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 이제 성전 휘장이 찢어짐에 따라 어떤 휘장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성소와 나머지 성전 단지, 가장 신성한 장소와 나머지를 구분하는 휘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하는 성전이었을까요? 둘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전자라면, 지성소라면, 희생 제도가 이제 취소되었거나, 신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거나, 신의 자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신의 고유한 자리가 더 이상 지성소 안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측이라면, 성전 자체의 기능, 즉 성전의 끝을 나타내는 벽을 말해줄 수 있는데, 물론 저주와 맞아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분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성전이 파괴되고 3일 후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진술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성전과 그 기능이 무엇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속죄와 희생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독특한 위치에서 끝났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문을 작업하고 살펴볼 때, 항상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 관찮은 때를 표시했습니다. 매번 그들은 조용히 하라고 말하거나, 말하거나, 꾸지람을 듣거나, 어떤 식으로든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부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주보고 서서 그가 죽는 것을 본 백부장은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 복음서에는 교정도 없고, 침묵도 없고, 꾸지람도 없습니다.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관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백부장 자신이 무엇을 알고 믿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것은 조금 더 문제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관점에서 올바른 이해에 대한 징후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로서 우리는 그가 이제 올바르게 말했다는 것을 압니다.

로마 황제에게 신격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보통 누군가가 신의 아들로 선언되었을 때 일어났고, 그것은 그들이 죽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마가는, 제 생각에, 예수의 죽음의 상황이 매우 경이로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오 내내 일어난 어둠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그가 죽는 것을 본 백부장은, 그것은 그런 순간이었을 것이고, 그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었고, 너무 중요해서 백부장이 유일하게 옳은 대응이 신성과의 관계를 선언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백부장이 로마 군인에게서 처음으로 희석되지 않은 고백을 한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례와 얼마나 비슷한지 생각해 보세요. 세례에서 찢어진 베일이 있고, 우리가 이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의 세례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이 찢어졌다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베일과 같습니다. 당신은 세례 때 "이것은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시편을 인용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세례가 상징하는 바, 예수의 사역의 시작이었던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그 주변에 출애굽 모티브가 있고, 예수가 요한의 세례에서 죄인들만 속한 곳에 서 있고, 그 모든 것이 작용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서, 다시 유월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나오는 출애굽 모티브, 속박과 노예 상태에서의 자유, 그리고 사역의 마무리가 있습니다. 사역의 시작이 있었고 이제 사역의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들이 서로 해석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고, 이것이 처음부터 예수가 하려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 선교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메시아에 대한 이 위대한 선포가 이제 로마 군인의 입술에 올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40절에는 멀리서 바라보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여성들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성들은 막달라 마리아, 어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 안셀름이었습니다.

그가 갈릴리에 있을 때, 이 여인들은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섬겼습니다.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다른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날은 준비일, 즉 안식일 전날이었고, 물론 구약성서에서 알 수 있듯이, 예를 들어 신명기 21장에서 알 수 있듯이, 처형된 희생자의 시신은 해가 지기 전에, 특히 일을 할 수 없는 안식일 전날에 매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회 의원으로서 존경받는 구성원이었고, 그것은 산헤드린 공의회였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곳에서 심리에 참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산헤드린의 정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찾고 있던 그는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전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혼자 계셨지만, 그를 여전히 돌보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44절에서 그가 이미 죽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고 기본적으로 사망 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백부장에게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부장 으로부터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 그는 시체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보통 로마인들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도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십자가에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의 이 십자가형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체를 요셉에게 가게 했습니다. 요셉은 린넨 수의를 가져와서 그를 내려서 린넨 수의로 싸서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뉘었습니다. 그는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가 누워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그가 분명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계몽의 새벽에 예수가 죽지 않았고, 어떻게든 의식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에 반하여, 빌라도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백부장에게 확인하게 합니다. 둘째, 우리는 그가 묻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 중 하나가 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예수가 누워 있는 곳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몇 세기 전에 부활에 대한 인기 있는 설명 중 하나는 두 여인이 확인하러 갔을 때 잘못된 무덤에 갔고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줍니다. 그들은 그가 묻힌 곳을 목격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그들은 기다렸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솔론은 향료를 가져와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동안 그의 몸을 장례에 대비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주일의 첫날 아주 일찍, 해가 뜬 후에, 그들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16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올려다보니,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컷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오른쪽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부활하셨고,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그를 낚았던 곳을 보아라. 그러나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가 갈릴리에서 너희보다 먼저 간다고 말하여라. 거기서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그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무덤에서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떨림과 놀라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즘 대부분의 성경은 9절 이하에 이르면 1620년 끝까지 괄호가 줄지어 있습니다. 괄호가 있는 이유는 그 구절들이 마가복음의 일부라는 텍스트 증거가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사본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로 그 사본들, 1장 1절에서 16절, 8절, 바로 그 사본들, 바로 그 동일한 사본들, 바로 그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다, 그 15장과 8절, 15장과 8절에서 우리는 이것이 원본 사본과 일치한다는 것을 매우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9절에서 20절을 의심하고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9절에서 20절에는 사본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들은 본문의 전달 역사 측면에서 매우 늦게 나온 구절들입니다.

그것은 초기 사본의 초기 부분 또는 마가 복음의 초기 사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스타일 도 다릅니다. 그것은 마가 복음의 글쓰기 스타일이나 그리스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맞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대한 어떤 신학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약간 이상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8절에서 9절로 넘어가면 이상한 변화가 있는데, 특히 그리스어를 보면 문장의 주어가 누구이고 누구가 아닌지에 대한 이상한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의는 9절에서 20절은 원래 마가복음에 없었고 마가복음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지되는 이 구절들의 확실성에 대한 이유 중 하나는 사본 발견의 현실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특히 초기 영어 성경 중 일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사용했던 사본, 그들이 다른 사본을 살펴보고 원본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내려고 했던 방법, 그들이 수세기 전에 사용했던 모든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크게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세기 동안,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통제되고 엄격한 텍스트의 증거를 점점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같은 과정을 거치고, 우리는 마가가 8에서 20까지 또는 9에서 20까지를 썼다는 것을 정말로 부인해야 합니다. 실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제 말은, 9에서 20까지 또는 그 일부에, 사실, 9에서 20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짧고 더 길고 더 긴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들이 마가 사본에 추가되었다면, 당연히 질문은 왜냐는 것입니다. 글썬, 답은 마가가 반드시 가져야 할 부활의 모습이 없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래서 만약 설명이 없고, 실제 부활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이 있었다는 선언을 하지만 실제 부활의 모습은 없고, 그것은 문제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후의 서기관들은 마가 복음에 부활의 모습을 넣고 싶어할 것입니다.

부활의 현현이 교회 고백의 핵심 측면 중 하나라는 사실, 즉 예수가 살았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고, 묻혔고,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직접 그 시퀀스를 실행합니다.

제 말은, 그것이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부활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부활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부활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빈 무덤 자체가 초기 고백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후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이 마가복음에서 “너는 갈릴리에서 나를 다시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활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는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서 거기서 만나라고 말해”라는 힌트만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문제가 있지만, 그 여인들이 불순종하는 듯합니다. 흰 옷을 입고 흰 가운을 입은 이 인물이 그들이 찾는 예수가 부활했지만 그는 여기 없다고 말하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난다면, 그들은 나가서 떨고 놀라서 무덤에서 도망쳤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고, 마가복음은 여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그게, 제 말은, 반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십자가 처형 전처럼, 그 생각, 명령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실제로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크가 부활한 모습을 가졌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크에는 더 긴 엔딩이 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쓰여지지 않았고, 이것이 쓰여져서 보내졌고,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거나, 아마도 아주 일찍 사라졌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아마도 아주 일찍 사라졌고, 어떻게 된 일인지 마크의 엔딩, 마크가 쓴 엔딩이 지속되고 억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마가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부활의 현현이라는 주요 교리 중 하나를 빼고 이야기를 썼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부활의 현현을 자신에게 말합니다. 아마도, 아마도 문학적 긴장을 유발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물론, 우리는 9~18장, 9~20장은 마가가 쓴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 외에는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기 전에 한 가지를 고려해 보고 싶고, 다음에 모일 때 마가복음의 신학 전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마가복음의 결말이 있다는 가능성, 이론적 가능성을 고려해 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의 결말은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사용했고, 마태복음의 여러 군데를 따랐으며, 때로는 자세히 설명하고, 때로는 덧붙였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Rithmington이라는 학자가 한 번 이것을 제안했고, 저는 그것이 적어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고, 마태복음 28장과 우리가 방금 마가복음에서 읽은 것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1절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의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마가와 매우 비슷한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보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와서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태 복음서의 판본일 것이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았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고, 그를 두려워하는 경비병들은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마태 복음서의 판본이다.

그러나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본 것입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아라. 이것은 마가와 같다. 그리고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말해라. 보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거기서 당신은 그를 볼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말했잖아요. 이건 마가복음 16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무덤에서 재빨리 떠났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6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6절을 살펴보면, 이런 대화가 있죠? 예수께서 길에서 그들을 만나시는 장면과 마태오의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16절에서, 다시 한 번, 훨씬 더 화려한 대화, 혹은 더 자세한 내용을 접한 후에, 매우 간결하고 매우 의도적인 사건으로 돌아가는데, 이는 매우 마가적입니다. 16절에서, 이제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산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그를 보고 경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제안한 전환에서, 16절과 17절이 실제로 마가복음서가 아닐까요. 당신은 그 여인들이 가라고 말했고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말하는 부분을 놓칩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경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마르코적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심지어 이 순간에도, 그들 중 일부가 전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우려를 품는 것은 제자들에게서 보았을 것과 일치할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마태복음에서 읽어드린 이 구절들이든 아니든, 마가복음의 부활에 대한 텍스트적 기억이 있다면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자체에 대한 연구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에 대한 처음 여덟 장, 그리고 권세를 가졌지만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것을 내려놓은 자에 대한 마지막 일곱 장과 16장까지입니다.

다음에 모일 때 마가복음의 포괄적인 신학과 그가 교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논의할 것입니다. 그때 뵈겠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4, 마가복음 15:32-16:8, 십자가 처형, 빈 무덤, 그리고 끝입니다.